

목포근대역사관, 관람객 25만명 돌파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 목포 전체 관광객 증가 이후 변화 뚜렷히 나타나

올 해 목포근대역사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목포시는 12월 26일 기준 근대역사관 관람객이 250,4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4년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 기록이다. 시는 원도심 일대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면단위 문화재로 등록(등록문화재 제718호)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가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근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문화재여행과 육단이 소재

생생문화재 등 근대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들이 큰 호평을 받은 점도 관람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차별화된 매력과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라는 점을 활용한 미디어마케팅도 전 국민의 방문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 맛의 도시 선포를 통해 목포가 식도락 여행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맛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점,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 및 고힌도 해안데크 개통 등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 목포시는 근대역사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근대역사관 2관 전시 리뉴얼,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할

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일대에 분포한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높여 목포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해남읍성 해체물 보관 관리 '엉망'

신청사 시공 후 방치

해남군청사 뒤쪽에 위치한 해남읍성이 신청사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보존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신청사를 시공하고 있는 우선중합건설과 읍성을 시공하고 있는 ㈜대륜건설측이 레미콘 타설을 위해 일부 해남읍성을 해체해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인근 군청부지와 남도추모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주석과 채움석을 옮겨 보관하고 있다. 해체물은 이 과정에서 이동과 강한 바람이 더해져 지주석의 번호표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신청사를 시공하고 있는 우선중합건설과 읍성을 시공하고 있는 ㈜대륜건설측이 레미콘 타설을 위해 일부 해남읍성을 해체해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인근 군청부지와 남도추모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주석과 채움석을 옮겨 보관하고 있다. 해체물은 이 과정에서 이동과 강한 바람이 더해져 지주석의 번호표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공원 인근 주차장 부지에 채움석과 지주석의 청테이프가 돌에 찍혀 번호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읍성 해체물이 쓰레기가 뒤섞인 토사와 같이 보관되어 있어 강한 비바람에 지주석과 채움석이 뒤범벅이 될 위기의 상황인데도 해남군과 ㈜대륜건설측은 안내 간판만 설치해둔 상태다. 지난해 해남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부지내에 위치한 해남읍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해남읍성의 보존 및 복원을 결정하고 신청사 설계에 반영했으며 정비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읍성 정밀발굴조사 및 문화재청 등 관계전문가 지문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남군민 임 모씨(52세)는 "해남군이 읍성을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더니 해체물 관리상태를 보니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장흥군, 2020년 해동사 방문객 증가 위해 결의 다진다

2020년 '정남진 해동사 방문의 해' 지정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2020년을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한다. 선포식은 오는 1월 1일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전망대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와 함께 열린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안중근 약사 보고, 해동사 홍보 영상 '도마의 불꽃' 상영, 선포 포퍼먼스, 만세삼창, 일출 감상 순으로 진행된다. 정종순 장흥군수와 위등 장흥군

의회 의장의 선포 선언 후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상징하는 110개의 연 날리기가 펼쳐진다. 행사 끝난 후 일부 방패연은 해동사, 동학기념관 군청 등 주요 시설에 전시된다. 군은 이번 선포식과 해맞이 행사에 지역민과 관광객 3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일출 예정시간은 오전 7시 39분이다. 장흥군 장동면 만수마을에는 국

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해동사'가 자리하고 있다. 1955년 장흥의 유림 안홍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재를 털어 사당을 건립한 것이다. 건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동명월(海東明月)'이라는 친필 현판편액을 하사받았으며, 위패 봉안식에는 딸 안현생과 5촌 조카인 안춘생이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참석했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3년간 이곳 해동사 인근에 7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지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동사를 역사, 의향, 문화의 명소로 가꾸고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2020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흥군을 방문해,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며,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지원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무안군, 지자체 혁신 우수평가

무안군은 지난 2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62개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적을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자율혁신, 혁신성과 등 3개 항목 14개 지표를 평가했다. 무안군은 올해 기관장 혁신 리더십으로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지역의 혁신적 성장에 기반한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무안 YD페스티벌, 명사초청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또한 주민주도형 자체 마을 만들기 '행복무안 수련마을', '스마트 마을 돌봄' '무안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혁신행정을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주)유한건강생활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은 신안꾸지뽕의 원물 수매부터 가공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이익 존중과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소비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6일 (주)유한건강생활 본사(서울 동작구 노량진로)회의실에서 '신안꾸지뽕 판로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신안군의 주요 특산품인 꾸지뽕과 신안군의 다양한 농수산 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연구, 꾸지뽕 농수산 식품연

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개발과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이를 통해 상호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신안꾸지뽕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신안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주)유한건강생활은 꾸지뽕 원물을 공급받아 가공하고, 꾸지뽕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